고다이바 夫人 Lady Godiva -노출증의 代母

김창남 (69, 대뉴욕)

영국 코벤트리란 지방에서 주민들이 가혹한 세금 때문에 끼니를 이을 수 없다는 하소가 영주의 부인, 고다이바 부인에게 들어간다. 고다이바 부인 자비심을 발동 남편에게 간청, 가난한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 나가기 힘들다 하니 세금을 내려 주심이 여하? 주민들이란 불평하도록 태어난 무지렁이들이요. 귀담아듣지 마시오! 한마디로 일축. 고다이바 부인은 아마 바가지를 긁도록 태어난 여자인 듯하다. 끈질기게 대든다. 마누라의 집요한 바가지를 견뎌낼 남편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염이 한자나 된다고 알려진 이 영주도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공짜가 어디 있나? 부인께서 알 몸으로 말을 타고 장마당을 통해 마을을 한 바퀴 휘-익 돌고 오면 부인 말 들어 주겠소! 도저히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조건을 내거는 거다. 감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랴? 했지만 이 영주, Leofric 백작, 마누라 잘못 봤다. 고다이바 부인, 여섯 자 머리로 치렁치렁 앞을 가린 채 알 몸으로 말 등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다. 고다이바 부인의 고결한 행동(귀부인이 서민들의 장마당에 알몸을 보인다는 건 그리 고결해 보이지 않으나 그 동기만은 고결하다.)에 감복한 주민들은 모두 집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걸고 빗장을 내려 보지 않기로 서약한다. 귀부인이 베풀어 주는 선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래 그 알몸을 보는 무례를 저지르지 말자는 주민들의 보은(報恩)성 단체행동이었다. 단체행동에는 언제나 이탈자가 생기게 마련. 토마스란 사내 창문 틈으로 내다보려 했다. 이 사건은 서기 1000년대에 벌어졌었다. 내다보려는 시도는 했으나 성공은 못한다. 내다보는 순간 실명했다는 거다 실명했을 뿐 아니라 평생 안질로 고생했다 한다. 하여간 톰(peeping Tom)은 관음증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긴다.

팔백 년 후, 1842년에 당시 영국의 계관시인이었던 알프레드 테니슨, 이 이야기를 듣곤 시로 읊는다. 위의 내용은 테니슨의 시를 따른 것이다.

나는 지금 고다이바 부인이 살았다는 코벤트리 市로 가는 런던 발 급행열차 안에 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드러난 것은, 우선 의심하고 본다, 고로 존재한다는 현대인으로 서의 삐딱한 태도가 아니래도 주민의 세금 인하 때문에 알몸으로 장터를 활보했다는 얘기가 어쩐지 석연치 않다. 너무 청결하다. 고결한 행위 바닥에는 노출에 대한 숨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 아냐? 욕망의 만족을 위한 무의식적인 꼼수 아니었나? 노출증은 성적 흥분 그리고 그 흥분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라지 않나? "그녀는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분수대의 물꼭지는 교활하게 힐끔거리는 듯했고 개 짖는 소리에 마저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말발굽 소리는 쿵쿵거리는 그녀의 가슴과 박자를 같이했고, 세상이 온통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나무 사이의 틈, 서있는 흉상들의 눈 모두 자기를 향한다." 테니슨의 시에 의하면 고다이바 부인, 순간순간 흥분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 흥분이 성적 흥분이 아니라면 무어란 말인가!

그리고 남편 레오프릭 백작? 마누라를 알몸으로 장터를 돌게 하는 이 친구 역시 변태 아냐?

변태(성욕자) 혹은 도착증이란 뭔가? 변태(變態)가 있으면 원태(原態)(?) ? 바뀌기 전의 모습 -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프로이트는 음경의 침투에 의한 성행위를 정상 원사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는 성적 흥분 만족을 위한 어떤 행위도 변태가 되는 거다. 이 영주 부인, 알몸을 대중 앞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모종의 흥분 그 만족을 얻었다면 당연히 변태의 범주에 들어가겠다. 그런 가?

뒤이어 프로이트는 영유아에서 多形도착, 여러 가지 모습의 도착 현상(polymorphous perversion)을 발견하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서부터 도착, 변태가 시작되는지 두붓모처럼 명확하게 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린다.

바우보(Baubo), 여신 혹은 마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Demeter), 딸(페르세포네 Persephone)이 하계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 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 "얼굴에 웃음기는 가셨고 식음을 전폐" 사방을 헤맨다. 아무도 그녀를 우울의 늪에서 끄집어낼 수 없다. 일레시우스의 왕 그녀를 위로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한다. 모든 시도가 허사인 듯싶었을 때 바우보를 끌어드린다. 걸직한 농담이 장끼(長技)인 나이 적당히 든 여자다. 각종 야한 외설한 농담 끝에 술잔을 권하나 데메테르 단호히 거부. 이때 바우보, 치마를 걷어올려 그녀의 은밀한 부위 소중한 부위를 노출시킨다. 이 우스꽝스러운 짓에 데메테르 폭소를 터뜨린다는 게 바우보 신화의 개요 다. 혹자는 바우보를 점잖지 못한 (외설한) 코미디언이라 명명해 코미디를 통해, 장난스러운 활기로 폭소를 유발, 우울이란 단단한 껍질을 부숴버린 거라고도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바우보의 행위, "치마 걷어올리기"에 내재하는 막강한 주술적 magical 인 힘 때문에 데메테르가 웃음보를 터뜨린 거라 한다. 바우보의 행위에 대한 결이 다른 이해다. 하지만 난 다음의 견해에 더욱 동조한다. 여보시게. 데메테르 神! 내 지금 하녀의 역할을 하고 당신은 여신이라지만 우린 모두 여자지? 강력한 동료의식이다. 우린 이 소중한 걸 함께 갖고 있는 거요. 육체적인 쾌락의 원천이기도 하고 생명의 기원이기도 한 이 소중한 보물을. 또 산다는 덴 상실에 매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아 두시게! 하여간 데메테르는 크게 웃는다. 웃음이 제공하는 해방감 안도감! 또 치유력. 웃음은 최고의 영약이라 하지 않나? 우울증은 치유되고, 데메테르는 종래의 평정을 되찾아 딸의 아버지 제우스를 설득, 하데스와의 회담을 성사시킨다. 대지의 관장(管掌)이란 본래의 임무로 돌아간다. 곡식은 익어가고 산하는 다시 생기로 꽉 들어 찬다.

치마 올리기

도대체 이 치마 올리기라는 건 무언가? 외설인가? 주술인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는 일, 알 수 없으나 이 전통은 마디 그라(Mardi Gras) 축제로 이어지고 원초적 본능의 Sharon Stone에까지 이른다.

뉴올린스의 버번(bourbon)街 이른 아침, 간밤의 시큼한 술 냄새가 진동한다. 마디 그라 축제가 공식적으로 끝난지 이 주 밖에 안되어서 인가? 아니면 프렌치 쿼터의 버번가는 늘 그런 건가? 술 냄새가 찌들게 배어 버렸다는 건가? 아니면 유전자의 농간으로 이 거리 생길 때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건가? 하여간 쉬 없어질 성질의 것이 아닌 듯싶다. 늦은 오후에 갔을 때도 술 냄새는 가시지 않았다. 앞으로 다가오는 여자가 느닷없이 치마를 걷어 올린다. 아뿔싸! 비드(beads)를 던져야 된다는 걸 잊었구나! 근처 상점에 들어간다. 플라스틱 비드들이 주렁주렁 걸려있다. 여남은 개 들고 카운터로 향한다. 가격이 눅다. 치마를 걷어 올리는 여인에게 비드를 던지지 않는 무례, 다시는 범하지 않으리! 하루살이보다 짧은 순간적 사랑일 망정 놓치지 않으리.

영화 원초적 본능에서 Sharon Stone, 취조관들 앞에서 취조를 받는 중 한쪽으로 꼬았던 다리를 다른 쪽으로 바뀌는 도중 가랑이 사이로 음부가 (바우보 처럼) 보였던가 안 보였던가? 영화를 다시 봐서 확인해? 하여간 다리 꼬고 앉아있는 스틸 사진은 그녀의 아이콘으로 널리 퍼졌었다.

섹스팅 Sexting

Feminist 철학자 식수(cixous), 여성은 몸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그들의 관능을(sensuality) 망설이지 않고 표현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들의 노출 현상을 男根 선망(penis envy)이니 결여되어 있는 것(lack)에 대한 보상작용이니 하며 폄하하던 프로이트 식의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내 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무한한 기쁨의 원천 아닌가, 게다가 아기까지 가질 수 있어!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몸인가!의 기치 아래 십 대의 여자애들은 스스로의 알몸을 찍어 보이 프렌드에게 텍스트(영상) 메시지로 보낸다. 소위 섹스팅이다.

고다이바 부인, 바우보, 마디그라의 여인들 Sharon Stone, 이십일 세기 십 대 여자애들의 공통점은 모두 그들의 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다. 여성의 몸이 지니고 있는 마법적인 힘을 이용, 고다이바 부인은 남편의 稅收를 찬탈 주민들에게 인심을 썼(을 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꿈틀거리는 관능을 표출했)고, 바우보는 음부를 노출, 여신의 폭소를 유도, 우울증을 치료했고 마디그라의 여인들은 비드로 상징되는 남성들과의 순간적인 관능을 즐겼고 샤론스톤은 보일 듯 말 듯 다리 꼬고 앉기로 취조관 및 남성 관객들의 시선을 강탈하지 않았나! 그리고 스팅의 십 대들은 보다 직설적이다.

열차를 내려 코벤트리 시내로 향한다. 市 안내센터의 젊은 여직원이 상냥하게 설명을 한다. 고다이바 투어는 시간이 늦었다며 어디 어디 가야 할 데를 지도에 마크를 해가며 꼭꼭 찍어 준다. 시내 광장에 있는 고다이바 부인 동상까지 걸어서 십여 분 이면 된단다. 매일 正午엔 시티센터 시계탑에서 창문으로 고다이바 부인이 지나가고 그 위에는 피핑 톰이 나타나 고개를 뺀 단다. 점심 먹느라 정신이 팔려 고다이바 부인과 피핑 톰을 친견(?) 할 기회는 놓쳤다.

뮤지엄의 공식명칭은 허버트 뮤지엄이고 일층 한 쪽에 고다이바 부인 관이있다 문간에는 피핑 톰이 수문장처럼 지키고 서있다. 각종 포즈의 고다이바 부인 초상이 걸려있다. 모두 인터넷에 나와있는 그림들이라 새로울 건 없다. 대부분의 그림들은 테니슨의 시 '고다이바'가 발표된 이후에 그려진 것들이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광장, 그 정면에 동상이 광장을 굽어보고 있다. 긴 머리로 치렁치렁 앞을 가린 고다이바 부인 말에 올라있다. 용감하고 대담했던 여자, 현대 여성운동가들의 사유(思惟)를 천년 전에 실천했던 여자, 몸을 소통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았고, 그녀의 관능을 숨기지 않은 고다이바 부인이 알몸으로 말 잔등에 올라있다. 자신의 이름이 정신과의 범주를 넘어 세계 만방에 퍼지리란 생각은 꿈에도 못한 채, 벨지안 초콜릿의 달콤함으로.